

“관람객 발길 이끄는 문화공간 거듭날 것”

올해 새해설계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

‘도자문화관’ 건립...문화사적 관점 ‘신안해저유산실’ 눈길 호남 역사·문화유산 관련 연구로 지역 새로운 콘텐츠 개발

“올 한해도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흥선(사진) 국립광주박물관장은 21일 2025년 올해 박물관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관장은 “지난 한해 동안 박물관에서는 전남의 정자와 도자기를 통해 조선시대 풍류를 살펴본 특별전부터 고대 신라·가야 장송의례에 사용된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에 관한 순회전까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며 “올 한해는 ‘도자문화관’ 건립에 중점을 두고 그 공간을 내실 있게 채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도자문화관은 건축면적 7천100여 제곱미터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전시 공간, 2층은 관람객 편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는 “1층 전시실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다. 조선시대 대표 가마인 광주 충효동 가마 유적을 비롯해 1천년 한국

도자기 역사를 소개할 ‘한국도자문화실’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신안해저 유산 1만9천여 점에 선보일 ‘신안해저 유산실’은 아시아도자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자문화관 2층에는 박물관 정원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카페를 조성해 ‘문화와 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도자기를 엮어 제작한 신기술 활용 영상 콘텐츠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박물관은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관장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며 “호남의 대표적인 선사·고대 유적인 광주 신창동 유적은 1992년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술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호남고고학회와의 ‘선사·고대 한반도 식량 생산과 소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와 이와 관련한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지역학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며 “쇠퇴하던 우리 차 문화를 일으킨 조선 후기 승려 우리 차 문화를 일으킨 조선 후기 승려 초기 지역문화사와 전남지역 차 문화의 원형 복원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관장은 “지역민의 즐거운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며 “박물관 정원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비롯해 토요일 어린이 공연, 박물관 숲 이야기, 어른신 단원들로 구성된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지원 등을 통해 남녀노소와 함께하는 지역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무용협회장에 오윤환 조선대 교수

(사)대한무용협회 광주지회 신임 회장에 오윤환(56·사진) 조선대 공연 예술무용과 외래교수가 선임됐다.

오 신임회장은 조선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동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민대와 전북대에서 수년간 강의했다. 광주시립발레단 수석단원 및 발레마스터로 활동했으며 이후 광주 로얄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안무 및 연출 등 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다.

제20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광주 예총 예술문화상, 광주무용인상, 박금자상 등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k프로발레협회 상임이사, 한국무용교사협회 전남 지회장, 광주무용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신임회장으로서 광주 무용예술 발전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SNS 홍보 강화, 타지역 협회와의 교류, 젊은 안무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



이다.

오 신임 회장은 “1990년 창립 이후 박금자 초대회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0명의 회장님이 35년간 광주무용을 지켜

온 역사와 뿌리가 깊은 단체인 만큼 더욱 아껴가 무겁다. 이를 토대로 광주무용협회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광주무용협회는 전국무용제에서 최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역량이 대단하다. 다가올 전국무용제에서도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지역 예술인, 협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독립운동 유산 기록 ‘해방 이후 광주 이야기’ 단행본 기증식 개최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전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이 최근 광주 지역사를 담은 ‘해방 이후 광주 이야기’ 단행본 기증식을 열었다.

‘해방 이후 광주 이야기’는 민족 분단의 역사 속 광주가 걸어온 길과 독립운동의 유산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광주 지역사가 담겨있다.

재단은 이날 기증식에서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에 단행본 30권을 전달하며 독립운동 정신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기증을 받은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의 회장 우대현은 독립운동가 우재홍 선생의 아들로 더욱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우 회장을 대신해 독립운동계승사업회 대외협력위원장인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이 참석했다.

노경수 이사장은 “이번 기증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 이후 광주 이야기를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CC재단, ‘들락’ 감성 담긴 생활소품 출시

패브릭포스터·룸슬리퍼 등 6종

“‘들락’만의 아늑한 감성 담긴 생활소품으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누리 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새해를 맞아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의 시즌 그래픽 상품으로 생활용품 6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문화상품은 ‘들락 DLAC’의 주요 색상인 핑크와 블루를 조합하고, 유기적인 드로잉 라인을 패턴으로 상징화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편안한 분위기의 패션·생활 용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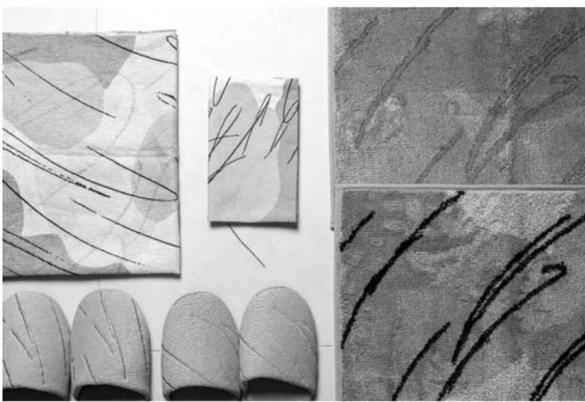
먼저 집안 분위기를 산뜻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패브릭 포스터’와 ‘도어매트’,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룸슬리

퍼’ 등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독서 애호가들을 위한 ‘북커퍼’,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한 ‘양우산’과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장우산’ 등 일상속 활용성이 높은 상품들도 선보인다.

이들 시즌 그래픽 상품은 ACC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 ‘들락 DLAC’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은 독자적이면서 연결된 아시아의 문화(Dots and Linds of Asia Culture)를 의미한다. ACC재단은 ACC 전시 및 공연 연계 등 기관 특화상품 외에 매년 한 시즌을 상징하는 그래픽 이미지 개발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의 ‘들락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나해까지 수건, 니트 블랭킷, 양말, 예코백 등 들락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담은 상품을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새해를 맞아 들락의 새로운 시즌 그래픽 상품

을 출시하게 됐다”며 “들락만의 독특한 컨셉과 고유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에 시각적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지방 지사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8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